

ARTIST
우순옥

침묵의 바다, 비어 있지만 충만한

우순옥 개인전 <무위예찬>(국제갤러리 5. 13~6. 12)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그의 작업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인 '무위(無爲)'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라진 장소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한다. 과거의 작업에 시간을 덧입혀 새롭게 완성한 회화 비디오 설치 등 12점을 선보인다. '적지(謫地)와 왕국' 사이에 놓인 상태로 '우리는 여행자'라고 고백하는 작가의 행위는, 사실은 비어 있지만 동시에 충만한 자기 내부의 '왕국'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함일지도 모른다.

/ 김 장 언





아래 · 〈마이크로홈-꽃〉 비디오
8분 2006_국제갤러리 전시 전경
2016

이전 페이지
왼쪽 · 2011년 국제갤러리 개인전
도록 뒤표지 드로잉 (부분)
오른쪽 · 〈12편의 신기루〉
비디오 설치, 잡초 가변크기
2011_국제갤러리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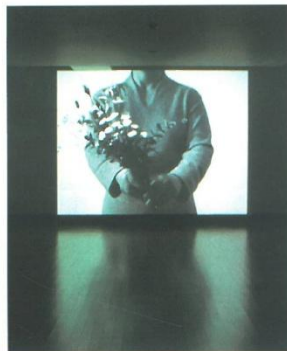
나는 현재를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순간순간 과거가 나를 부여잡고, 순간순간 미래가 헛된 꿈을 꾸게 하지만, 나는 현재에 머물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어린 시절 읽었던 기억도 나지 않는 인도의 어떤 현자가 쓴 잠언집 때문일 것이다. 그는 우리가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체로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한편, 나는 나의 현재가 오롯이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스무 살의 나는 중학교 1학년 시절 읽었던 그 소설책을 우연히 펼쳤고, 나의 현재가 그 책을 읽었던 사춘기 소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소설을 읽고 살았지만, 나는 부단히도 그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다. 나의 현재는 잊었던 그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그 경험의 실체를 기억도 못하면서, 그 순간이 인도했던 그 길을 걸어 왔던 것이다.

고독과 연대의 사이에서

우순옥은 나에게 잠시 독일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술가로서 교육자로서 접지기 어려운 흥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낯두리를 하고 나서, 독일에서 만나야 할 사람과 방문할 곳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이 지금 '적지와 왕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유배지와 왕국, 추방된 장소와 자신이 주인인 장소, 카뮈의 소설집 제목인 '적지와 왕국(L'Exile et le Royaume)'을 최근 부쩍 떠올린다는 작가에게서 나는 자신의 소명과 실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흔적을





왼쪽 · 〈나의 몇가지 휴식들〉
비디오 8분 2005 / 가운데 · 〈장소
속의 장소-너를 위하여〉 비디오
3분 2001 / 오른쪽 · 〈무위의
풍경〉 비디오 10시간 26분 2014

다음 페이지
〈무위의 정원〉 창문에 접착 시트
텍스트 가변크기 2015/2016



찾을 수 있었다. 그 소설집에 수록된 〈요나 혹은 작업 중의 예술가〉에서 요나는 자신의 별을 찾아 스스로 유배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지만, 고독(solitaire)과 연대(solidaire)라는 분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정지한다. 예언자 요나가 회계와 구원 그리고 부활이라는 알레고리로 표상될 때, 예술가 요나는 분별 할 수 없는 알파벳 t와 d 사이에서 혼절하고 만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얀 캔버스에 고독과 연대가 모호하게 중첩된 그 순간은 봉인되었고 작가는 말할 수 없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나에게 어떤 만남을 이야기해 주었다. 작가는 한국에 돌아올 때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던 짐들이 보관된 장소를 다시 방문했다고 했다. 그 짐들은 다시 독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그곳에 위탁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순옥은 독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히 한국에 되돌아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여행자로써 혹은 망명자로써 부유하지만 그 짐들은 독일의 어느 장소에 실존한다. 주인은 없다. 내면져진 그 짐들은 자신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이제 주인 아닌 주인이 그 짐들 속에서 한 그림과 대면하게 되었다.

〈침묵의 바다〉는 1983년 젊은 우순옥에 의해서 그려졌다. 스스로 성취했다고 자부했던 하나의 그림, 그러나 그 확신을 결코 발설할 수 없었던 20대의 우순옥. 그래서 〈침묵의 바다〉는 어쩌면 보여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른다. 그는 독일로 떠나면서 그 그림을 어머니에게 위탁했고, 독일에서의 자신의 별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에서 그 그림은 다시 한 번 환기된다. 지도 교수의 소박한 간청, “네가 한국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보고 싶구나”라는 말에

그는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을 때, 어머니에게 맡겨진 자신의 짐들 속에서 그 그림을 들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 ‘그에게 그 그림을 보여 주었겠지?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야. 그는 여전히 별을 찾고 있고, 과거에 그 별을 비추던 그 빛은 이제 멀리 떠나갔잖아.’

〈침묵의 바다〉는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점점 환기되는 기억의 실체로 그 그림과 상관없이 작가에게 남겨진다. 한 번도 발설된 적이 없었던 자신의 성취된 예술. 이야기해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왕국. 시간이 지나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도 〈침묵의 바다〉를 드러낼 용기를 내지만 〈깃발-외로운 궁지〉를 선보인다. 남겨진 것은 〈침묵의 바다〉를 위해 준비했던 전시 설치 드로잉뿐이다. 보여질 수 없는 그림과 그 그림을 전시하기 위한 드로잉은 환기되지만 호명되지 않는 실체 아닌 실체가 되어버렸다. 모리스 블랑쇼는 〈기다림 망각〉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마치 살아 있는 두 몸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에 바싹 밀착해 있는 두 말, 그러나 미확정적인 경계를 두고”. 미확정적 경계는 어떤 공동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블랑쇼에 따르면, 그 경계는 ‘그와 ‘그녀’의 현전과 응축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그릴 수 없다.

작가는 ‘물질비물질(Materiellimmateriell)’을 이야기했다. 그에게 화두 같은 이 만들어진 단어는 규정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성찰적 질문일 수도 있다. 우순옥은 이야기한다. “우리를 날게 하는 빛은/ 물질인가 비물질인가/ 나무를 움직이는 바람은/ 물질인가 비물질인가/ 소리 없이 날아가는 연기는/ 물질인가 비물질인가/ 끝없이 이어지는





우순욱 / 1958년 인천 출생. 이화여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뒤셀도르프 콘스트아카데미 졸업, 국제갤러리(2016, 2011, 2006, 1993), 아틀리에705(2009), 일본 아이치현립미술대학(2009), 대림미술관(2002), 아트선재센터(2000) 등 다수의 개인전 개최. 광주비엔날레(2012), 《추상하라》(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011), 《Vide & Plénitude》(파리 에스파스코뤼네스 2009), 시드니비엔날레(2005), 《사계(의 노래-한국현대미술전)》(샌프란시스코 아시안미술관 2003) 등 참여. 현재 이화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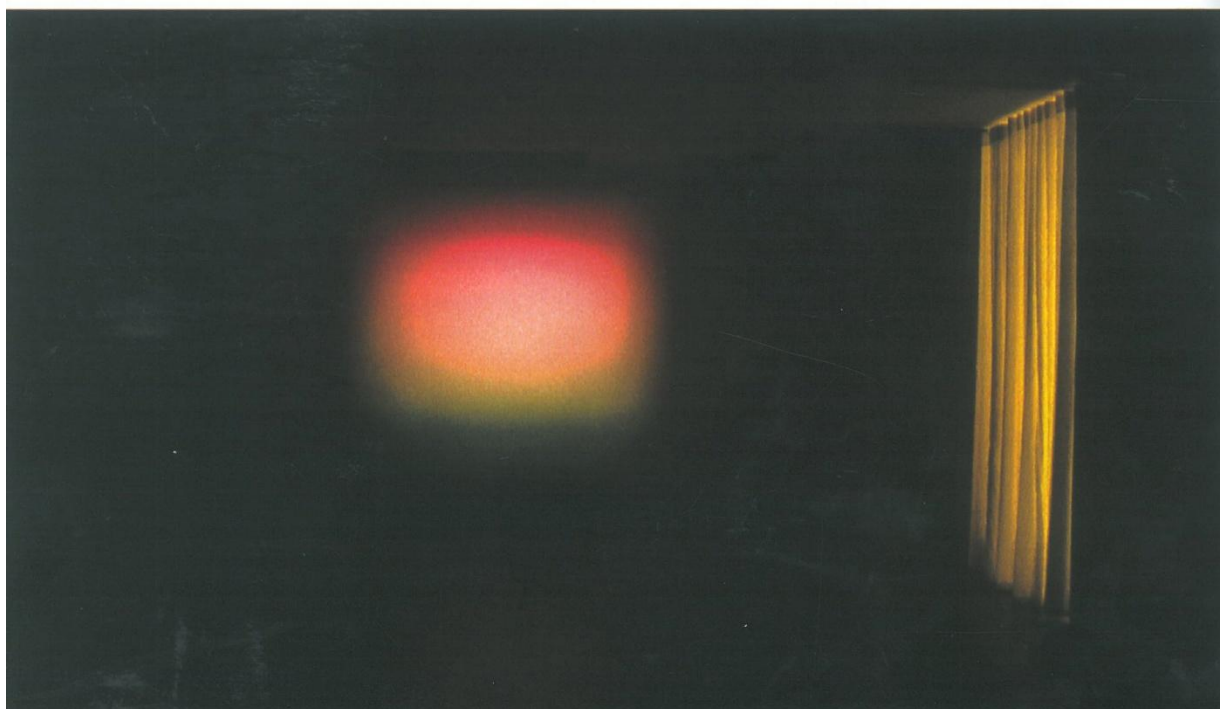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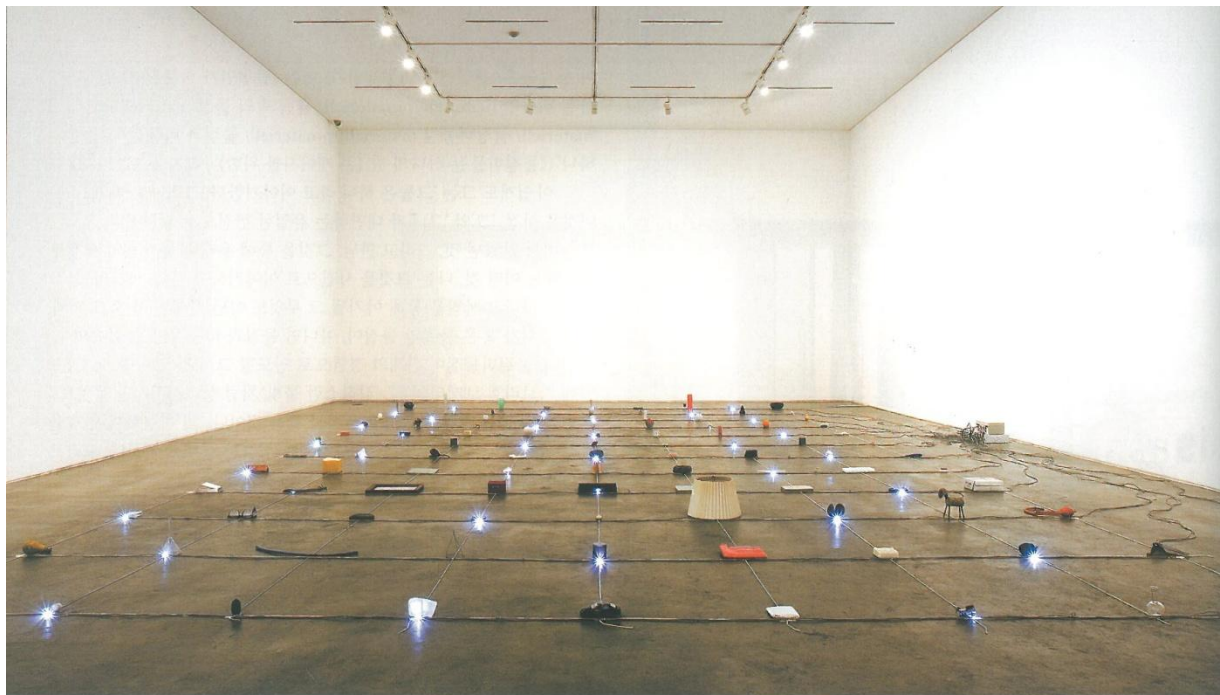
이 생각들은/ 물질인가 비물질인가/ 나는/ 물질인가 비물질인가/ 물질 비물질 materiell immateriell/ 물질 속의 물질 materiell im materiell/ 물질비물질 materiellimmateriell/ 물질과 비물질/ 그들은 하나”(《물질비물질-하나의 방 (존 케이지를 위한)》, 작가 노트, 1988)

아쉽게도 그는 ‘그들은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에게 이것은 사건, ‘그와 그녀’가 대면하는 유일한 현현으로 일체진다. 하나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만남.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불가능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떤 것, 나는 그것을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사건의 원인도 아니고 사건을 통해 야기될 그 무엇도 아닌 발생된 사건 그 자체, 그와 그녀가 혹은 물질과 물질이, 아니면 물질과 비물질이, 물질속의 물질이, 물질비물질이 관계의 경험으로 인도할 그 사건 말이다. 이것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시 <갑작스런 불빛>처럼 상기시키지만 무엇도 확정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경험과 같은 것이다. ‘빛 가운데에서 빛을 망각하는 것’과 같이 그 문구는 나를 미확정적인 경계로 이끈다. 그리고 우리가 분리되었음을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사건 이후 출현하는 것은 온기일 것이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고, 회복도 아니며, 탄생도 아니다. 사건 이후 비워진 공동의 공간, 익명의 공간을 흐르는 따뜻한 기운이다. 작가에게 <따뜻한 벽>은 대화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것은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아르고선(船)일지도 모른다. 이아손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게 된 이후, 자신에게 남겨진 남은 친구, 아르고선에서 휴식을 취하다 아르고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아르고선은 그에게 따뜻한 벽, 되돌아 갈수도 없지만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삶의 실재에 놓여진 하나의 온기일 수도 있다. “나에게 불현듯 죽음과 삶은 같은 질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일까? ‘따뜻한 벽’, 그 제목에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삶을 의미하는 ‘따뜻함’과 죽음, 단절, 차가움을 의미하는 ‘벽’이 하나의 제목을 이루고 있다.”(《따뜻한 벽》 즈음에), 작가 노트, 1996) 블랑쇼는 <죽음의 선고>에서 차가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을 기록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텍스트의 유일한 사건은 ‘이리 와’이다. 그 사건으로써 ‘영원히 그녀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증지에 이른다.

비어 있지만 충만한 왕국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덮고 있는 적지(讖地)로서 그 내부의 왕국은 비어 있으며, 그곳을 흐르는 것은 따뜻한 기운일 것이다. 그 따뜻함은 아무런 의미도 따지 않는다. 작가가 당신에게 꽃을 건넸을 때, 작은 촛불 하나를 비추었을 때, 그곳에 남겨진 것은 커다란 비어 있음일 뿐이다. 거기에 온기가 흐른다. 어쩌면 우리는 여행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행위들은 망명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기 선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자신이 텅 비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따뜻함을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작가가 나무와 풀들을 가지고 와서 공간을 온실로 만드는 것은 그 식물들이 생명이 다하더라도





왼쪽 · (커플 트리 B) 철, 형광등 7개 170×71×71cm
2011 / 가운데 · (장소 속의 장소-주름의 방 #5) 사진
2001 / 오른쪽 · (이동하는 빛)
상들리에, 철 구조물 2002

왼쪽 페이지
위 · (마이크로홈 1-108)
혼합재료 가변크기 2006
/ 아래 · (장소 속의 장소-빛
드로잉) 슬라이드 필름 설치
2002



온기의 의미를 우리가 사유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래전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쌌던 천에 남겨진 그 흔적에 금색 실을 수놓은 것은 문화적 행위로서 온기라기보다 문자적 의미로서 온기를 표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병풍 위의/ 빛 드로잉/ 숨 쉬는 빛/ 아주 천천히 떠오르는/ 또는 사라지는 공백들/ 간소한 움직임/ 공기처럼 교환하는 색채들/ 굴곡들/ 하나의 은유/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환상들/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들/ 매우 짧은 시간동안만 지속하다가/ 곧 사라지는/ 사라져버리는 모멘트/ 고요한 침묵”(〈건넌방- 빛 드로잉〉, 작가 노트, 2000)

침묵은 충만한 말이다. 도래할 말들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들을 결코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침묵은 말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혹은 그 말의 사라짐을 출현시키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말일지도 모른다. 드로잉은 역시 충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드로잉이 함축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드로잉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 그것은 매번 실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니면 결코, 드로잉이 담고 있는 가능성은 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드로잉에는 어떤 충만한 공동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우순옥은 자신의 드로잉이 ‘이미지의 언어적 드로잉’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작업을 ‘드로잉’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미지적인 것은 당혹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어떤 매혹을 발산시킨다. 매혹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여 본다는 것을 포기하게 하지만, 그 대상에게 다가가게 한다. 불량쇼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미지적인 것이 발산하는 그 매혹은 감각이라는 본성을 포기하게 하고, 세계를 포기하게 하며, 낮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며, ‘불가능으로서의 시각’ ‘죽어버린 시선’ ‘영원한 시각의 환영이 된 시선’을 함축한다. 침묵은 말의 사라짐을 출현시키며, 그 출현은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눈멀었음을 표상한다. 한편 여전히 우리는 매혹되어 지금 이 세계에 있다. 빗겨간 현재의 그림자가 침묵 속에 드로잉 속에 눈 먼 우리의 눈 속에 비추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시금 불량쇼의 말처럼, 고독은 하나의 상처이기 때문이다. 우순옥은 〈장소도 시간도 아닌〉이라는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홀려가 버린 것, 먼지가 되어버리는 실, 무너져버리는 사랑의 철저한 무... 모두가 무너지고 오직 화려한 대문만 남은 이 사랑의 성은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의 폐허인 것이다. 폐허 위에 내리는 햇빛은 그래서 더욱 따뜻하다.” 그의 고독이 무엇 때문에 야기된 것이든 간에, 삶은 결코 완성되는 것도 완성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존재하고 그의 드로잉은 침묵한다.

작가는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의 바다〉는 그에게 이리 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처음으로 시간의 장벽을 넘고, 응축된 시간의 금기를 깨고, 그 경계를 넘었다. 그래서 그는 새롭고 유일한 사건을 지금 만나고 있다. 불가능한 두 세계의 미화정적인 경계 속에 자신의 꿈을 내던졌다. “어디로 길이 지나가나요?” “이 마지막 도정(道程)에서 훑고 지난 간, 당신의 내맡긴 몸으로.”(모리스 불량쇼, 《기다림 망각》)